

날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

나 운 영

첼로의 제왕이었던 파블로 카잘스(1876-1973년)는 이렇게 말했다.

‘날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

날마다 나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어느덧 내 나이도 고희를 바라보게 되었다.

8 15 해방이 된 그해 9월부터 오늘까지 줄곧 교수와 작곡과 저술의 3중(三重)생활을 해 오다 보니 나이 먹은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주는 '경로권'을 애용하며 시내버스를 즐겨 타고 다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세월은 유수 같구나.

신사 체면에 왜 자가용이나 택시를 안 타느냐고 책망하는 사람에게 나는 '수분지족(守分知足)'이란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한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이 땅에서 자가용이나 타가용 차를 탄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사치스럽다고 생각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버스를 즐겨 타는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나는 작품을 구상하거나 혹은 작품이 갓 태어났을 때에는 으레 버스를 탄 다음에 새김질을 한다. 작품이란 온갖 진통을 겪은 끝에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휴식이나 냉각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면 반드시 허점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동안에 불순물이 여과되듯 작품도 다듬어지는 것이다.

나는 79년 9월부터 시작한 <신작성가 월례 발표회>를 11년째 계속해 오고 있어 어느덧 123회를 맞이했고 871곡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 곡들이 대부분 버스 안에서 구상됐고 또한 재수정된 것임을 생각하면 버스야말로 나의 요람이요, 산실이기도 한 셈이니, 나에게서는 참으로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된다.

'날마다 나는 거듭 난다. 날마다 나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카잘스의 명언을 나의 좌우명으로 삼고 오늘도 열심히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월간 새농민 '90. 6월호>